

순창군, 발효 미생물로 전통장류산업 '쑥쑥'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중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사업' 선정 토착종균 대량 보급...지역 장류·식초 제조 업체 매출 성장 주도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농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중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장류 제조기업의 매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사업의 중균 보급기관으로 선정, 전국의 전통 장류제조업체 5곳과 발효 식초제조업체 5곳을 대상으로 토착 중균(황국균·고초균·효모·초산균)을 보급하고 있다.

또 토착 중균 보급과 함께 중균 활용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어 완제품 생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통장류제조업체 5곳은 지원받은 중균을 활용한 관련 제품 매출액이 2억2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는 발효 제품 특성상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은 발효 기간 단축과 안정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조만간 무료 중균공급이 곧 단절될 예정이다.

이에 진흥원은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중균을 지속해서 공급받길 원함에 따라 지원사업이 끝나도 미생물 보급을 당분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올해도 중균 보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통장류제조업체 7곳과 발효 식초제조업체 2곳에 대해 기업 맞춤형 중균 보급과 발효기술 지도 및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우수한 국내 토착 발효 미생물의 생산자원을 목적으로 추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연구원들이 '중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사업'으로 개발한 전통 장류 제품들을 들어 보이고 있다. <순창군 제공>

중인 '발효 미생물 산업지원센터 건립'이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완공과 함께 국내 10조원에

달하는 발효식품 시장에 토착 발효 중균 첨가제의 대량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합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전남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정책자금 확대·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요구

합평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중태)는 최근 합평천지중합복합지관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재홍 청장을 비롯해 각 시·군 회장과 합평군 임원, 임용수 전남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지역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의 관심 사항인 '모바일지불결제시스템(제로페이)'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올해 달라지는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회장들은 "전남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갈수록 자본과 농민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 대형마트,하나로마트 등 편리한 유통 공간 확보전략으로 지역상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지역이 폐허가 되기 전에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계부서인 중기부에서도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 원도심 재생사업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건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합평군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지원관련 행정업무와 상담,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합평=황윤학 기자 hwang@

'전북 스포츠클럽 교류전' 열린다

18일 완주군 일원서 축구·탁구 등 6개 종목 450명 참가

한국형 스포츠클럽 모델 구축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지역 스포츠클럽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2019 전라북도 스포츠클럽 교류전'이 18일 완주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교류전은 전북스포츠클럽과 전주

비전스포츠클럽, 군산스포츠클럽, 익산스포츠클럽, 완주스포츠클럽, 남원거점스포츠클럽 등 도내 6개 클럽과 전남 순천스포츠클럽이 초청 돼 진행된다.

축구와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탁전, 청백전 등 총 6개 종목에 약 4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의의 대결을 펼치게 된다.

개회식은 당일 오전 10시 삼례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며 화합의 장인 교류전에 맞게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최형원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2018 스포츠클럽 선수저변확대 성과평가'에서 도내 스포츠클럽 대부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금암공원에 문화공간 조성 시, 2024년까지 102억원 투입

남원시는 2024년까지 102억원을 들여 노암동의 금암공원(사진)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2021년까지 금암공원에 산책로와 어린이 모험놀이터, 북카페, 체력단련장, 쉼터 등을 만든다.

이어 2024년까지 분수대와 정자, 거울 연못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

남원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등을 연결하는 시내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암공원은 4만㎡ 규모로 소나무숲, 벚나무숲, 철쭉 군락지가 있고 시내 관광지 인근에 있어 남원시가 활용 방안을 고민해 왔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내 관광지가 가까운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야간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조명시설과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사업' 스타트

중앙로 등 상가 리모델링 전시·판매 공방 10곳 조성

곡성군이 낭만 공방을 육성하는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사업'을 시작한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춘어람사업은 낙후된 곡성군 중앙로·낙동원 일대에 도자기, 그림, 클레이, 목공예,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의 공방운영자를 모집하는 청년창업 사업이다.

곡성군은 비어있는 상가 등을 리모델링해 제조부터 전시, 판매가 가능한 복합 형태의 갤러리형 공방 10개소를 조성한다.

창업자의 공유 공간인 '청춘어람센터'도 구축한다.

거리도 1960~1970년대 영화로 콘셉트에 맞춰 가로환경과 도로를 정비하고,

상가 뒤편 길은 공원으로 가꿔 문화놀이의 장소로 활용한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공방 8곳을 오는 12월까지 리모델링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공방 활성화를 위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손을 맞잡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곡성군 관계자는 "인근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높은 낙동원 일원을 변화시켜 관광객을 유내할 유망 계획이다"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현대重군산조선소·GM 협력사 100억 지원

전북도·군산시·전북신용보증재단, 공장 재가동·업종변환 활용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경영 악화일로에 놓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엠군산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공장 가동중단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와 올 4월 군산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재지정에 따른 공장 재가동 및 업종변환을 위한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최소한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가 전북신보 출연동의안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한도초과, 담보력 부족 등 여신한도 초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지원은 전북신보가 접수·심사, 대출 등 일련 과정을 담당하고, 생산설비를 갖춘 조선·자동차 기자재 및 부품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금액은 총 1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신보에서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전북신보의 보증한도(8억원)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용자기간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3.8% 내외의 금리로 지원되며 이자차액에 대해 2.5%를 도에서 지원, 실질적으로 업체가 부담할 금리는 1.3% 내외가 될 전망이다.

또 군산시는 추가지원 해당 협력업체가

다수인 만큼 전북신보 출연금에 대해 군산시도 9억원의 일정금액을 분담한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경위 위원장은 "우리지역에서 대기업들의 잇따른 가동중단으로 협력기업들이 힘든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폭충한 자금은 아니나 최소한의 자금을 긴급지원하는 만큼 협력기업들의 공장 재가동과 업종변환 등을 위해 긴요한 자금활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이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추가지원 시기가 늦어질 경우 협력기업 경영환경 악화 및 지역경기 둔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